

박현주 ‘글로벌 독심’ 빛났다… 미래에셋證券 순익 ‘사상 최대’

(미래에셋그룹 회장)

올해 2분기 순이익 1조9052억
영업이익 전년비 397.5% 증가
미국·홍콩 등 고르게 실적 개선
국내 브로커리지 수수료 36% ↑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2분기 2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두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장기간 추진해 온 글로벌 사업에서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 가운데 국내 주식 거래 활성화와 트레이딩 실적 개선까지 더해진 결과다.

◆순이익 1조9052억원…금융지주급 이익 규모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조48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7.5%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81.1%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조90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9.4%, 전 분기 대비 90.2%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증권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두 분기 연속 1조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2조52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6.1%, 전 분기보다 86.3% 증가했다. 매출액은 21조63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1%, 전 분기 대비 49.9% 늘었다.

상반기 누적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영업이익은 3조86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5%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3조8863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9072억원으로 각각 348.6%, 337.8% 늘었다.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은 2조8922억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증권

으로 336.9%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도 뛰었다. 2분기 말 자기 자본은 16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9.5%에 달했다. 증권업계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브로커리지뿐 아니라 해외법인과 트레이딩, 자산관리(WM) 등 여러 사업 부문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자본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익 규모는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해도 두드러졌다.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순이익은 KB금융의 1조9922억원보다 870억원 적었지만 신한금융의 1조8201억원보다 851억원 많았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각각 1조1928억원과 1조46억원이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KB금융 3조8846억원, 신한금융 3조4427억원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하나금융의 2조4029억원과 우리금융의 1조6090억원을 웃돌

았다. 금융지주와 증권사는 사업구조가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의 이익 규모가 대형 금융그룹 수준으로 커졌다는 점은 확인된다.

◆해외법인 세전이익 150% 증가…박현주 글로벌 전략 결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사업이다.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의 2분기 세전이익은 약6091억원으로 1분기 2432억원보다 3659억원, 약 150%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해외 사업에 진출한 이후 거둔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해외법인의 연결 세전이익 기여도는 약 24%로 전 분기보다 6%포인트 확대됐다. 해외법인 ROE도 24.8%를 기록했다. 해외사업이 외형 확대 단계를 넘어 그룹의 이익을 담당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 이익 비중은 미국 37%, 홍콩 35%, 런던 18%, 인도 5%로 나타났다. 미

국과 홍콩이 해외법인 이익의 72%를 담당한 가운데 런던과 인도 등 주요 거점도 고르게 성과를 냈다. 해외법인의 경상수익 증가와 투자자산 평가이익이 실적 확대를 이끌었다.

해외 실적의 가파른 성장은 박 회장이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전략의 성과로 평가된다. 박 회장은 국내 증권업에 머물지 않고 미국과 홍콩, 영국, 인도 등으로 사업 기반을 넓혀왔다. 2분기에는 주요 거점이 동시에 이익을 내면서 장기간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됐다.

국내 사업도 증시 거래 활성화와 고객 자산 확대에 힘입어 성장했다. 2분기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6256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6% 증가했다. 주식 거래 증가가 위탁매매 수수료 확대에 이어졌다.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수익은 1310억원으로 1분기 1125억원보다 185억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단순 주식 중개를 넘어 금융상품 판매와 자산관리에서 수수료 기반을 넓힌 결과다.

트레이딩 및 기타금융손익은 8369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07% 증가했다. 투자는 행(IB) 수수료 수익도 428억원으로 65% 늘었다. 해외법인과 브로커리지, 금융상품 판매, 트레이딩, IB 등 주요 사업에서 실적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며 전체 이익을 끌어올렸다.

◆고객자산 124조원 증가…전통·디지털 아우르는 플랫폼 구축

고객 기반도 커졌다. 2분기 말 국내외 총 고객자산은 78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24조원 증가했다. 연금자산은 지난 6월

말 80조원을 넘어섰으며, 최근 1년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은 시장 평균의 약 2.5배인 60%를 웃돌았다. 고객자산 확대는 브로커리지와 금융상품 판매 등 국내 사업의 수익 증가로 이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6월 홍콩에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투자 플랫폼 ‘MAPS(Mirae Asset Portfolio Service)’를 출시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해외 투자자가 한국 주식과 미래에셋 상장지수펀드(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인바운드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시한 ‘미래에셋 3.0’ 전략은 디지털자산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에 편입된 코빗은 최근 ‘Digital X’로 사명을 변경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토대로 실물 연계자산(RWA) 토큰화와 토큰증권(STO) 등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을 연결하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Digital X 임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 미래에셋의 노하우와 코빗의 전문성을 결합해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Digital X를 미래에셋 3.0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를 공고히 하고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에 기여하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NH투자증권, AI로 업무·의사결정 혁신

하반기 리더스 컨퍼런스 개최
상반기 지배주주 순이익 9652억
본업 경쟁력 강화, 사업 연계 확대
AI 에이전트·전사 AI 플랫폼 개발

NH투자증권이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결합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한다. 인공지능(AI)을 업무와 서비스, 의사결정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에도 속도를 낸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전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리더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 경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965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행사에서는 ▲본업 경쟁력 강화 ▲사업 간 연계 확대 ▲인공지능 전환 추진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각 사업 부문이 담당하는 고객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본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점검했다. 자산관리(WM) 부문은 자문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디지털 부문은 차별화된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투자는



NH투자증권이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전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리더스 컨퍼런스(Leaders Conference)’를 개최했다. 신재욱(왼쪽), 배광수 대표이사(오른쪽)가 임직원들에게 경영전략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 /NH투자증권

행(IB) 부문은 기업의 성장 단계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자문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사업 부문 간 연계도 확대한다. 각 부문이 보유한 고객 기반과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의 복합적인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행사에서는 외부 강연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인공지능 전환 부문에서는 AI를 단순한 업무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과 회사 운영체계를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 전환은 AI를 기업의 업무와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적용해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NH투자증권은 연초부터 인공지능 전

환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을 검증해왔다. 이달부터 자산관리·투자은행·기관 영업 등 우선순위가 높은 7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핵심 AI 에이전트 개발과 전사 AI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지시와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올해 말부터는 인공지능 전환을 회사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신재욱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증권업의 본질은 다양해지는 고객의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종합적인 금융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금값 다시 뛴다… 금 ETF 수익률도 ‘정충’

국내 금 테마 ETF 4종 수익률 6.9%

국제 금값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금값 조정 국면에서 중앙은행들의 매수세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가 지 완화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한 금 테마 ETF 4종의 최근 일주일 평균 수익률은 6.9%로 집계됐다.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 H)’가 11.86%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금과 은에 동시에 투자하는 ‘TIGER 금은선물(H)’도 5.38% 올랐다. 국제 금값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관련 상품의 수익률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 1월 5500달러를 넘어섬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6월 말에 들어서는 4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11일(현지시간) 장 초반 4434.84달러까지 오르면서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도 장중 4400선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서는 약 8.6% 상승하고 있다.

금값 반등은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고 달러 강세가 진정된 가운데, 가격 조정 이후 투자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수세다. 중앙은행들은 외

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금협회(WGC) 기준 올해 2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288.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최예찬 상생인증권 연구원은 “낮은 가격에서 중앙은행 금 순매수와 투자 수요가 증가했고, 중앙은행의 수요는 지속될 공산이 크다”며 “중요한 전제인 중앙은행 금 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중앙은행 서베이에서 전체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 전망은 올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기관의 금 보유량 전망은 45%가 늘릴 것으로 응답했다는 부연이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20개월 연속 금을 순매입 중이다. 금 가격 조정 국면에는 순매수 물량을 늘리기도 했다. 올해 1월 금값이 고점을 형성했을 당시 4만 트로이 온스에 그쳤던 순매입량을 금값이 4000달러 안팎까지 조정된 7월 64만 트로이온스(약 20톤)로 크게 늘었다. 7월 월평균 금 현물가격을 대입했을 때, 약 26억달러 수준이다.

한국은행도 금 투자에 나섰다. 한은은 올해 2분기 해외에 상장된 금 현물 ETF를 소규모로 매입했으며, 2023년 이후 13년 만에 실물 금 매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 보유 비중을 늘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9개월 만에 전환했다. /신하은 기자 godhe@